

시선

사설

미래창조스쿨의 성공은

섬세한 소통전략에서부터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3월 11일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대포 사건’으로 화자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흥캠퍼스 설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구성원 간 갈등과정 중 학생을 향한 소화전 발사라는 강압적 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물대포’라는 단어가 시국과 맞물려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된다는 점만 배제하면, 사실 이런 갈등은 대부분의 조직 공동체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단일 공동체에서 조직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 구성원 간에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는 것은 종종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제 구성원 집단이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는 방법론에 대해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을 경우 소통과 대화라는 과정은 자칫 일의 진척을 정체시키는 장애물처럼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용능력을 동원해 의사진행과정을 일방적 방식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방적 방식’이란 비단 소화전 살수와 같은 직접적 물리력 행사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적 절차 유지를 위한 섬세한 전략이 생략된 ‘소통이라는 명목을 위한 형식적 소통’ 역시 일방적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를테면, 학기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래창조스쿨 관련 학생 설문조사가 그렇다.

학생 공동체의 견해를 확인하고 의사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한 없는 언로(言路)의 제공을 통한 적극적 의견청취와 아울러 숨어있는 견해의 수집을 위한 세심하고 정밀한 여론수집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학교 측이 학생 여론을 청취하는 방식은 과연 섬세한 전략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학기 초부터 대학은 미래창조스쿨 설립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아래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주 부터는 일부 수업시간을 할애해 온라인과 동일한 양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복 응답의 가능성조차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과연 ‘학생여론’을 대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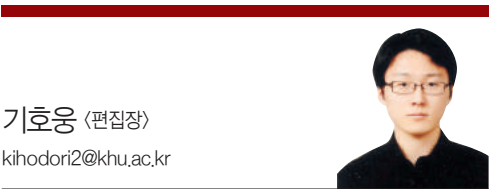
지난 프라임 사업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했듯, 명목을 위한 형식적인 소통의 결과는 결코 좋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청되는 소통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보고서 한 줄을 위한 의미적 소통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꾸준히 대화하고 토론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절차적 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창조스쿨이야말로 그 절차적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데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숨을 고르고 차분해질 때다. ‘교양학부’라는 완성형 전신을 기반으로 두고서도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에는 수 년 간의 준비기간이 요구됐다. 하물며 전신이랄 것도 없이 거의 무(無)에서 시작하고 있는 미래창조스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심도 깊은 논의와 밀도 높은 고민, 그리고 경계 없는 소통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 구성원을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대학 측은 구성원에 대한 소통의 방법론을 원점에서부터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



이 주의 주제 - 두 개의 선거 (학생회 재선거 / 대통령 선거)

3월 선거와 5월 선거의 온도차



‘가는 날이 장날’인 것처럼, 필자가 편집장을 맡았던 2017년 초는 학교 안팎에서 갖가지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학교 안에서 SPACE21사업이 막바지에 들어갔고 양 캠퍼스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며 미래창조스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교 밖에서는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대통령은 탄핵 당했으며 5월 대통령 선거가 결정됐다.

격동의 시기 한 가운데 대학 언론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영광인지 혹독함인지 모르겠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여러 대선후보들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 신문은 여러 대학신문사와 함께 대선후보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학보사 기자들이 기획한 행사답게 오가는 문답도 20대 젊은이나 대학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송을 통해서만 봤던 유명 정치인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설레기도 하지만 큰 기대만큼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후보들이 국민을 대함에 있어 진심을 다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러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처럼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특정 후보가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차별을 금지하면서 또 다른 법률로 금지조

항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예비 후보의 설명은 비겁한 변명으로 들렸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른, 현실정치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일부 후보들이 이와 같은 사안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수자들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철저히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세분화 된 시민의 다양한 모습은 정치인이 승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사람이 목적 그자체가 아니라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학교 안에서 진행 중인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재선거는 비교적 순수하게 다가온다. 명확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며, 기성 정치인에 비하면 대표자가 얻을 것은 크지 않음에 반해 이들이 감당해야할 의무와 책임은 훨씬 더 가깝고 무서울 것이다. 대선 이슈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회 선거는 이에 묻히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산적해 있는 일들, 가령 등록금심의와 책정, 학사제도개편, SPACE21에 따른 공간구성 협의 그리고 아직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미래창조스쿨의 존재 등은 직간접적으로 현재의 재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의 후배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비극은 없길 바란다. 이걸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다. 3월의 선택이 5월의 좋은 선택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한다.

굶어본 이들의 봄

세시봉

이수형 (서울 뉴스팀장)



버스타고 광화문 가는 길, 완연한 봄날씨에 기분 좋게 졸고 있는데 역시나 버스가 도중에 멈춰 섰다. 차량통행이 금지된 을지로 2가를 지척에 두고 버스는 유턴했다. “오늘은 탄핵기념 파티라도 한다니?” 툭툭대며 버스에서 내리는 아주머니 찌푸린 얼굴에 정신이 확 든다. 3월 11일. 탄핵선고 다음날이자 탄핵이후 첫 토요일이다. 어김없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종로에 모여들었다. 청계천 외곽에는 탄핵반대집회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을지로를 지나고 청계천을 건너 오랜만에 도착한 토요일 광화문은 이전에 본 것보다 한산했다. 가장먼저 눈에 띄는 건 ‘개 식용반대, 고양이 식용반대’ 서명운동장구. 그들이 소리치던 문장들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발견한 다음 불거리는 ‘사이비 종교 반대법 제정’ 서명운동장구다. 건넌받은 전단지에는 ‘재판부에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 밖에도 ‘NGO식품 반대’ 서명운동 등 각자의 요구를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들이 집회행사 양쪽 곳곳에 들어차 있다.

고난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세상과 마주한다

특이한 건 그들이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평소엔 받아들면 가방에 구겨 넣기 바쁘던 전단지들을 유심히 읽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당한 진실규명 요구를 번번이 묵살해 왔다’란다. 각각 서명운동장구 앞에는 서명을 하려는 시민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선다. 세월호 천막 앞에는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

적잖이 놀란 나는 놀이공원 돌 듯 전단지를 수집하고 나섰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관련 호소문, ‘IDS 홀딩스 사기사건’ 관련 호소문 등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들이 두 손 가득 모였다.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밤이 돼서야 깨닫는다. 변화를 이끌어낸 민중들은 타인이 외치는 변화에도 관대하구나.

무릇 굶어본 자만이 세상을 안다 했다. 이들은 이미 굶주림을 경험했고, 각자가 느끼는 부조리 속에 굶주린 이들이 만연한 세상을 아는 것이다. ‘정치판’이라는 세상에 소리쳐본 이들이 본인에게 팔플랫을 쥐어주는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못해, 전단지 속에 담긴 호소를 읽어내려 간 것이다. 그 속에 담긴 굶주림에 고민하는 장이 광화문에 펼쳐진 것이다.

잠시 서점에 다녀온 사이 하늘은 컴컴해졌다. 여전히 세월호 천막 곁의 촛불모형 앞에는 아이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가족이 보인다. 마침 불꽃놀이가 한창이라 한참을 구경하고 앉았다. 봄에 꽃이 피듯 어두운 하늘에 불꽃이 밝게 피고 시선이 하늘에 모인다. ‘이 곳에서 봄 햇살을 쬔 이들이 내일이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온기를 주겠지’ 생각하며 자리를 옮겼다. 봄이 오고 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혜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라리책)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가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학교와 의견 다른 재수강제도,
논의는 오리무중

미디어 여론동향 2017. 3. 6~3. 1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17학번 신입생부터 강화된 재수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학교와 학생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재수강제도, 변경될까?/대학주보 온라인, 2017.3.12) 현재 재수강 제도는 B-학점부터 허용되며 재취득할 수 있는 학점 수에 제한이 없다. 학생졸업역량강화TF는 취업률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부담이 없던 재수강 제도를 고치고자 했다. 변경에 따르면 C+학점부터 재수강이 가능하며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A-로 제한된다. 또한 학기 당 2개 과목까지, 최초 수강 후 4학기 이내에 재수강을 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이 붙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학생 대표 측은 1

차 재수강에 현행 기준을, 2차 재수강부터 변경안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놴다. 학교 측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2차 재수강 시 최대 학점 B+제한을 제안했다. 이후 서울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운위를 통해 관련 논의를 3월에 선출될 차기 총학생회에 넘기기로 했으며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은 2017년 제1차 확대운영위원회 투표를 통해 재수강 제도 변경에 반대하기로 결정해 추가적인 논의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지난주 행정실에서 신입생 같은 유학생이 직원과 이야기 하는 걸 봤다’는 글(#경희숲_20423, 2017.3.9)의 글쓴이는 행정실의 안일한 일처리를 꼬집었다. ‘수강신청을 못 했는지 더듬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데 직원 분은 한결같이 “다른 학생도 다 그렇게 하니가 정정기간에 하거나 다음 학기에 들으세요”라고 대답했다. 참 속 편한 말인 것 같다. 정말 하다하다 안 돼서 행정실에 가는 건데, 조금만 더 도와주고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썼다. 294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근로학생인지 좀 됐는데 행정실은 아무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좋은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다’,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클레임 할 수 있는 창

구가 있었으면 한다’, ‘조교들은 등록금 때문에 하는데 일도 많고 전화 늦게 받으면 혼날 뿐 아니라, 권한도 없는 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욕 먹는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자신의 장학금을 전액 기부한 학생이 있다.(간호학과 장대환 학생, 장학금 1,000만 원 전액 기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3.10) 장대환(간호학 2012) 학생은 삼성이 운영하는 드림클래스에 4번 참가해 장학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드림클래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로 참가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장 군은 이 장학금을 중학생 제자 10명의 이름으로 NGO단체, 소아암 환자에게 전액 기부했다. “아이들에게 수혜자의 입장이더라도 나눔에 동참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며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는 그는 “대학 안에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UN세계 평화보고서를 보니 의식주 다음이 교육과 의료였다”라며 “임상간호사로 경험을 쌓고 더 공부해 교육과 의료를 융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뚜렷한 계획을 밝혔다.